

대행 스님

여러분의 몸뚱이가 부처님의 법당이요, 그 안에 바로 자부처가 계십니다

오늘은 물에서 노는 어류에 대해서, 거기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물에서 노는 생물들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돼 있고 모습도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어류가 또는 동물 자체가 서로 교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속에서도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어류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의 천 년이라면 여기의 십 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류들도 차원에 따라서 돌고 돌다가 무뜩 우리네들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이 났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마음의 촛불을 항상 켜고 있답니다.

요즈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촛불을 한 번도 꺼트린 예가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와서도, 촛불을 켜는 것이 촛불이 아니라 마음의 촛불이 켜져야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을 아무리 켜도, 등을 사월 팔일 날 아무리 켜도 촛불이 아닌 것이 있고, 그것은 그냥 불인 것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겠기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책을 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못하든 하든 자기가 생긴 대로,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도 그렇게 차원대로 가기 때문에 어류 자체를 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잡아서 먹거나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천 년이 가고 백 년이 가고 이러게끔 놔두질 않죠. 그러나 그전에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 유명하게, 그 어류들이 많이 커서 참 별의별 모습을 다 하고 다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펭귄 같은 이런 걸 보면 걸어 다니게끔 돼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신사 같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속에서 살면서도 하(下)의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돌 틈에서 공부들을 하는 그런 어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번 한 팀 넘어갈 때, 이렇게 진화가 돼서 죽고 또 모습을 바꾸고, 죽고 또 모습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인어가 된답니다. 그런 것은 좀처럼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돼 있죠.

우리가 지금도 가만히 지켜본다면, 어류들이 알을 낳느라고, 또 알을 낳아서 새끼가 되기까지 모래톱에 나와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를 볼 때, 또 거북이도 모래 틈에 나와서 알을 까느라고 배가 고파도 참고, 몇 날 며칠을 참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 외딴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놀던 고향을 찾고 또 자기가 새끼를 깐 고향을, 즉 자기가 난 자리를 찾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생을 한다 하면 그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아주 죽이는 법이죠. 제가끔 나름대로 거북인 거북이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저희 고향 찾아가느라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저희들 노는 그 장소 찾아가느라고요. 그러니 고통을 주는 거는 말도 못 하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도, 만날 그런 얘기합니다만 탄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삼분의 이는 다 죽고 삼분의 일만이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 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도 역시 징용으로 끌어가서 쓸 거는 다 쓰고, 8.15 해방 되니까는 되는 대로 그냥…. 태워다 주는 겁니까, 어디? 풀어 놓는 거지. 고기들 물에다 풀어 놓듯이 말입니다. 그 머나먼 데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 그때야 뭐, 차가 변변합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저 가는 것만 좋아서 기차 꼭대기 위에도 그냥 붙들고 타고, 지붕에도 타고 이러고 오다가 꽁꽁 얼고 떨어지고 뭐, 말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는 거를 내 자신이 기억하는지라, 고기들 방생하는 것도 보면 '에이그, 저것이 징용 감얼이로구나,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더 애석하기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도릴 모르거든요. 도무지 한 치도 몰라! 그런데 그 고기들 좀 보세요. 모래 틈에다 알을 까 놓고요, 그거 성장할 때를 기다리면서, 아, 남녀라고 보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것이 다 성장해서 물이 들어오면 새끼들이 다 나갈 수 있게끔 해 놓고 바로 자기들은 죽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기묘하고, 인간의 생존이나 그 생물의 생존이 얼마나도 비참합니까. 또 비참한가 하면 얼마나도, 애정이라고 할까, 부모자식지간의 정이라고 할까? 그런 어류들도 자기의 목숨도 다 버려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래도 부처될 가능성이 100% 있다고 하는 고등 동물로서 그런 뜻을 모른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천차만별로, 차원대로, 모습대로 그렇게 다른 그런 생물들이 지금도 돌 틈에서 남을 해하지 않고 그저 이끼만 먹고 이러면서 공부하는 어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까맣게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어느 천 년이 돼야만이 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등 동물로서 인간이 돼 가지고도 그 먼저 과거에 걸어온 몇억 년, 억 년이 아니라 억겁을 거쳐서 오고도 자기가 걸어온 그런 걸 본 듯 만 듯 하거든요. 자기가 거쳐 온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천 년이 걸려서, 인간 사는 대로 하면 십 년이 걸려서 결국은 천국에다가 '나는 사람이 되겠다' 고 했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전에는 어부들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해 가지고, 삼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배로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때가 돼서 고개를 내밀고 물 바깥으로 한번 내다볼 때에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는 대로 그걸 연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면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깨닫기 전에는요. 깨달아도, 그만큼 깨달아 가지고도 그 몸을 벗어나서, 물속, 그 물 집을 벗어나서 땅덩어리로 올라와 가지고 인간의 허물을 쓰고 또 천 년을 견뎌야 하니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겠다고 무척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거북이가 천 년을 견디다가 그 날짜가 지나서 한 번 나올 기회가 있었답니다. 자기 마음은 깨달았으나 도저히 이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한번 내밀어 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가에 하얀 소복한 여인이 보이면서 배가 닿더랍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그 배를 따라가면서 자기는 '아, 이 모습을 벗어야겠다' 는 생각을 하고는 몸을 버렸습니다.

몸을 버리되 어떻게 버렸나 하면, 그 몸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그렇게 버릴 수는 없기에, 즉 말하자면 무역상한테 그냥 보이게끔 해서 잡힌 거죠. 잡힌 거보다도 모래톱에 엉금엉금 기어 나오니까 그 배에서 내려서 쉬던 사람들이 큰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니 저걸 팔아서 한몫 보겠다 하고서는 잡았습니다. 그 참, 아주 가만히 앉아서 떡을 받은 셈이죠. 예전에는 약으로다 많이 쓰여서 그렇게 큰 거북이를 한번 만나면 그때 돈으로 엽전이 백 냥, 이백 냥씩이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 가니까.

그런데 거북이가 자기 그 모습을 벗을 양으로 모래톱으로 기어 나와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뭘 갖다 주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을 버렸는지라 아무거라도 주는 대로 그냥 먹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술이었답니다. 지금은 약이 있지마는 그전에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 큰 물건을 데리고 가려면 술을 먹였답니다. 그래서 술을 주니까 그냥 먹고 보니 거북이가 생각할 때 '아, 이거를 먹으니까 어찌 몸이 이상하고 몸을 가눌 수가 없구나. 예라! 몸을 가눌 수가 없든 있든 내가 이 몸을 벗어야만이 될지언대는 이 몸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고서는 그냥 먹고 취하고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그저 하는 대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팔 양으로 장으로 가서 턱 내놨는데 너무나 엄청나게 크니까, 중국 사람이 대상인으로서 물건을 싣고 왔다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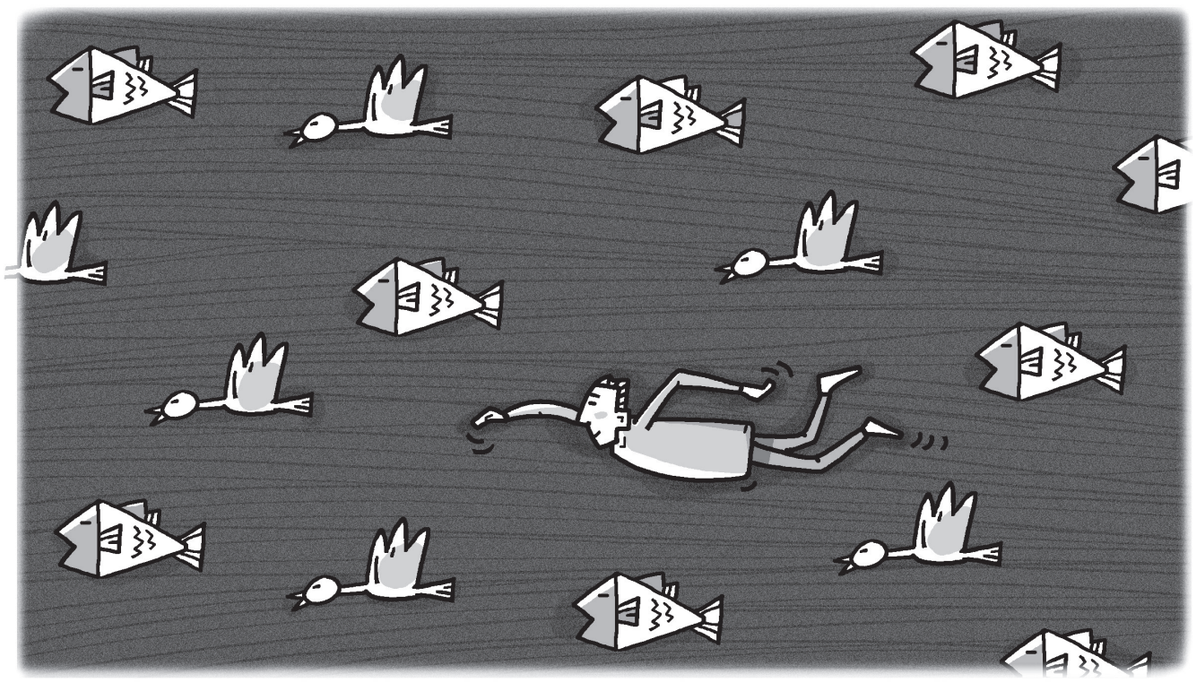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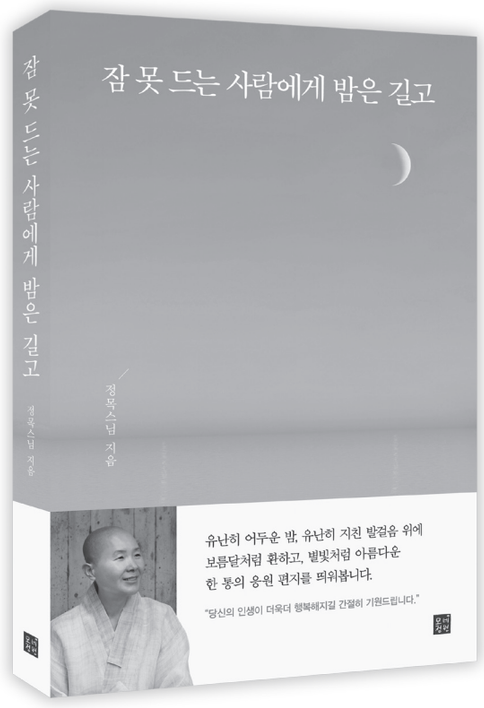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